

주일의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라

심 탁 클레멘스 신부
교구성서사도직담당
겸)평신도신학교육원장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와 '행동'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1. 제자의 길 시작하기 :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루카14,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하느님 나라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생명을 초월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생명과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하늘나라의 가치를 선택한 자는 자신의 생명과 지상의 가치에 자유롭다.

2. 제자의 길 수행하기 : 자기 십자가를 져라

루카14,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인생에는 '타고난 십자가'가 있다. 자신의 선택도 없이, 그 의미도 모른 채, 각자가 태어났다. 그것은 자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발판이

며,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모든 인생에는 '타고난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은 최고의 의미를 깨닫는다. 인생 최고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 나라' 안에서 성취된다.

3. 제자의 길 완성하기 : 모든 소유를 버려라

루카14,33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마태19,23-24; 마르10,23-25; 루카18,24-25)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산과 생명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생명과 권력과 재산과 가족과 모두를 내려놓아야 한다. 더 큰 것,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진 지나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각오와행동이없는자는 '그리스도제자의도'를 수행할 수 없다.

생명의말씀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14,33

지혜 9,13-18 필레 9,1-10,12-17 루카 14,25-33

생명에 대하여 ⑥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구 사목국

※ 지난 호에 이어서

교회는 인간 생명의 탁월성을 가르칩니다.

4. 교회는 인간 이외의 생명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전 지구적인 생태계의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다른 생명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사회적 관심』(1988년)은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발의 윤리적 성격에서 자연세계를 구성하는 제반 사물들, 일찍이 화랍인들이 그것을 특징짓는 ‘질서’를 의미하여 ‘우주’(cosmos)라고 일컬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사물들에 대한 존중이 제외되어도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34항). 교황은 그의 첫 회칙 『인류의 구원자』(1979년)에서 자연환경 오염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창세 1,28)는 성경 말씀을 “인간이 현명하고 품위 있는 ‘주인’이자 ‘보호자’로서 자연과 통교하는 것이지 ‘착취자’나 ‘파괴자’로서 자연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15항).

현대 사회의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러한 상황을 ‘생명에 대한 음모’가 이루어지

고 있는 ‘죽음의 문화’라고 지적하고 경고하였습니다(『생명의 복음』, 12항).

교회는 인간 생명을 신성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하느님께서 인간을 긍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육화사상(肉化思想), 강생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대가’상대자로서 영원하신 하느님의 생명에 초대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긍정된 존재요 사랑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인간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인간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는 남녀노소, 장애자, 태아, 배아의 구별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준엄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태 18,6).

생명,
그 소중한 품위!

본받을 건 본받아야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미사

연중 제23주일

입당성가

283 순교자 찬가

화답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파견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영성의향기

:: 복음적 가난

이세상에서 재물, 권력, 명예 등에 집착하게 되면 진리와 선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지기 쉽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자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적 가난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물과 사치품에 대한 절제와 금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인색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으로 연결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자세와 하느님께 마음을 다 열어 보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복음적 가난의 삶 안에서 신비체험이나 영적 자유로움과 충만한 기쁨을 결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박애 정신이 될 것입니다.

복음적 가난의 실천은 참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닮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들은 하느님께 고요히 기쁘게 자발적으로 순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도록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성실함을 보여주고 하느님의 법에 충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가난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행복하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영적 향기가 퍼져 나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 깊은생각

아들의 눈물



“어디서 난 옷이나? 어서 사실대로 말해 봐라”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입고 온 고급 브랜드의 옷을 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칠째 다그쳤다.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아들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훔쳤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잠시 뒤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경찰사로 데려가 자수시켰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고 결국 아들은 법정에서 사형되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에 마음 아파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였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 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숙연해졌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다. “불처분입니다. 광~광~광” 벌을 내리지 않은 뜻밖의 판결에 어리둥절해 하는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판사가 그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 옮겨온 글입니다 -

이선이 엘리사벳 순교 150주년 기념미사

- 일시: 9.30(목) 10:00, 신나무골 성지
- 주례: 조한길 타대오 주교
- 참석자: 전일 중식제공(순교자 체험 주막밥)

★ 모임행사 ★

시편성가연수(Sr.김정선,발성법(박재연) 회비:1만원
• 일시: 9.5(일) 15:00, 가톨릭음악원(255-4847)

떼제기도회

• 일시: 9.11(토) 20:00, 삼덕 젊은이성당

생명평화미사

• 일시: 9.13(월) 19:30, 고산성당

가톨릭의사회 창립50주년 기념대회

- 일시: 10.3(일) 09:30~15:30, 교구청 교육관 대강당
- 참석대상: 가톨릭신자 의사 및 가족
- 초청특강: 가톨릭의사의 사도직 소명 (이문희 바울로 대구교님)

• 해외의료봉사 체험발표, 초청음악회, 미사

제4회 대구평화방송 사장배 배드민턴대회

- 일시: 10.9(토) 09:00, 대구시민체육관
- 참가요강: www.dgprbc.co.kr 참조
- 문의: 251-2610

★ 파정 · 성소모임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파정

- 일시: 9.10(금) 20:00~12(일) 16:00
- 장소: 관구(안동), 파정비: 2만원
- 대상: 수도 성소를 갈망하는 미혼여성
- 문의: 010-5517-8833

젊은이 길찾기 파정(미혼남,녀)

- 일시: 9.11(토) 16:00~12(일) 14:00
- 장소: 논산 씨든 영성집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곤벤투알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400, 월배 수도원
- 문의: 010-5064-7467

한국의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매달 둘째주 토요일, 관덕정순교기념관성당

• 문의: 011-9319-1600 성소상담 언제나 환영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9.12(일) 1400~1700, 부산초량성서교육원3층
- 내용: 샘플모임, 문의: 016-606-2885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15:00~18:00
- 장소: 부산 남천성당 앞 북카페
- 대상: 고등·대학생·일반, 문의: 02-744-4702

★ 모집 · 교육 ★

9월 영어성경 공부반 모집

- 개강: 9.2(목) 10:00~12:00, 월회비 2만원
- 화(코린토전서, 신명기) 목(마태오, 창세기)
-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6506-3303

대구가톨릭대학교 2011학년도 수시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9.8(수)~14(화)
- 2010 교육과학기술부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전국 대구모대학 3개교)
- 전국최강장학제도 - CU HONORS, 해외복수학위
- 입시문의: 850-2580 (www.cu.ac.kr)

성인 ABC 영어반 모집

- 개강: 9.9(목) 13:00
- 매주 화·목 13:00 (주2회)
- 문의: 새빛학교(교대역) 476-3100

틴스타 성교육: 총체적인 성

- 일시: 9.13(일)부터, 매주 월 10:30(총10회)
- 장소: 교구청 별관 2회합실
- 대상: 30~40대, 문의: 010-3823-9007

전국 사제들을 위한 선교 특강

- 일시: 9.27(월) 11:00~16:00
- 장소: 대전 거룩한 말씀의 회(042-255-5004)
- 신청: 781-6100, 선착순 40명(9.20)
- 신청비: 무료, 지도: 이관석 신부
-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제1기 와인 제대로 즐기 과정모집

- 기간: 9월 첫째주~12주(주1회 2시간) 18만원
- 내용: 기초부터 쉽게(오전,아간)시음비별도

• 장소: 대가대평생교육원(감삼,동구,매일) 3곳

- 대상: 와인관심있는 일반인, 대학생, 직장인
- 문의: 526-3413 / 010-3810-2179

8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학연수 단체모집

- 기간: 3차(9.29(수)~11.25(목,8주), ~12.23(제2주)
- 장소: 필리핀-캐나다, 필리핀-호주(연계연수가능)
-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593-1273

아동을 위한 통합예술테라피

- 일시: 10.6(수)~11.24(수) 8회기
- 푸른평화제니퍼페레잔콘서트
- 일시: 10.8(금) 19:00
- 주최: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시 학점인정
- 이수후 공립학교 영어전문강사 응시가능
- 문의: 526-0121 (http://tesol.cu.ac.kr)

2010(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1차 모집: 9.8(수)~10.6(수)
- 대학 홈페이지(http://www.csj.ac.kr) 참조
- 입시문의: 입시홍보처 054)851-3021~2

★ 직원 채용 ★

한티피정의집 주방직원 모집

- 대상: 숙식가능한 55세 이하 여자 0명
- 조리사 자격소지자 우대, 선착순 채용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교적사본 각1통
- 문의: 054)975-5151

계산성당 주방 보조원 모집

- 문의: 254-2300 / 010-2996-8302

★ 안내 ★

교구법원공시(253-9550)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강대일 김형미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밀알위원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9월 6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9월 6일(월) 오후7시30분	꾸르실로 교육관
5대교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6일(월) 오전11시	신평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미사	9월 6일(월) 오후10시	한티순례자의집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9월 6일(월) 오전11시	성동프리텔413호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9월 9일(목) 오후2시	성모당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 592-1275, 593-1275

미성당 김금숙

- 3대 64년 전통 다이아몬드 예물전문
- 보석강령 무료서비스 실시, 샘플 다이아몬드
- 가름행사 (가름작품 받고 예물)
- 미국보석학회 공인 국제보석감정사 박재현(비오)
- 629-9090, 011-541-5415
- 앞산 순환도로 (구정북문) 미성당

도우미 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 대표 양 말 순(루시아)
- 591-2424, 656-9911
- 010-2008-2329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 성가정결혼상담소**
- 진실한신자와의 만남의 장
- 474-0025, 476-9275
- 가톨릭문화관 2층
-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달성피부과

- BF 아토피센터 1F 레이저,탈모
- 2F 여드름,흉터 3F 비만,미용수술
- 손 재 경 다미아노
- 김 인 주 레지나
-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 Tel. 566-4333, 559-7575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 (노인복지센터 운영)
- ◎ 교육생 모집 ◎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 신규반, 경력자반, 재직자(무료)교육반
-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 066-957-5057, 474-1577 ☎ 564-1577, 475-1577
- 서비스 이용문의 : 010-3153-9057

라식,백내장수술전문

- 김기산안과**
- Dr. Kim Ki San
- 의역박사/전문위 김 기 산(안드레이)
-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 반 월 당 대 구 학 원 9 층
- ☎ 257-8875 www.kisanlasik.co.kr

결혼상담

-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 (미혼, 만혼, 재혼)
-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 대구 - 070-8827-6207
- 부산 - 051)817-3887~8
- 서울 - 02)579-3889
- 02)338-0788
- http://mjms.co.kr